



JEA 전후 80 년 성명

우리 일본복음동맹(이하 JEA)은 전후 80 년을 맞아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 지난 30 년의 회고(입장의 확인)

우리 JEA 는 1995 년 『JEA 전후 50 년 성명』(이하 『전후 50 년 성명』)을 시작으로, 전후 60 년, 70 년의 기점마다 성명을 발표해왔습니다. 『전후 50 년 성명』에서는, 일본 교회가 15 년 간의 전쟁기간 중에 국민의례와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인접한 아시아 국가의 교회에게도 이를 강요하며 침략에 가담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죄를 표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일본 및 세계를 향한 선교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과, 이를 위해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믿음 위에서, 주님께 재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2005 년의 『전후 60 년 성명』에서는, 제 4 회 일본전도회의에서 채택된 『오키나와 선언』을 바탕으로, 우리의 무관심과 알고자 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뿌리인 증오, 차별, 편견, 적대감 등의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소서. 21 세기를 진정한 평화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 평화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서도 화해의 복음을 실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2015 년의 『전후 70 년 성명』에서는, 전쟁 중 일본 교회가 저지른 죄의 역사와 그에 대한 회개를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을 표명하였으며, 성경 무오성에 대한 믿음 위에선 아시아 및 세계 교회들과 협력할 것, 타국과의 화해를 방해하는 과제에 대응할 것, 작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설 것,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2. 현재 상황

그 사이, 일본 천황의 퇴위와 즉위를 계기로 열린 여러 행사들은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다이조사이(대상제 大嘗祭)는 새로운 일본 천황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맞이하여 함께 먹고 차며, 일본 천황의 명령을 받아 신이 된다고 여겨지는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이세이 다이조사이’를 앞두고는 교회 내에서 광범위한 반대와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레이와 다이조사이’당시에는 몇몇 움직임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천황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온 측면이 있는 한편, 『전후 70 년 성명』에서 채택된 ‘전해야 할 책임’과 ‘받아들일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전후 60 년 성명』에서,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에도 미군 기지의 75%를 오키나와에 계속 떠넘기고 있는 현실에 무관심했음을 고백하고, 회개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성명에서 제기한 과제들에 진지하게 임해 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속에서 미일안보 체제의 위협의 대부분을 오키나와가 계속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에서도, 전쟁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구조화되어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관한 내각 결정(2014 년), 안보 관련 법안 통과(2015 년), 공모죄 관련법 제정(2017 년), 안보 관련 3 문서 개정(2022 년), 방위비 증액(2023 년 이후) 등 전후 일본이 지켜온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구축’ 원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 전후 80 년의 다짐

전후 80 년을 맞아 일본 교회가 저지른 죄의 역사와 그에 대한 회개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무오성에 대한 믿음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짐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전쟁 중에 일본 교회가 저지른 죄의 역사를 배우고, 회개의 마음을 깊이 하며, 국가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믿고
 따르는 자는 간구합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
 2.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성실하게 재확인하고, 신앙과 삶의 분리를
 3. 반복하지 않는 것
 4. 전쟁 중의 상황과 유사한 사태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출 것
 5.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와 교회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 것
 6. 무관심하지 않을 것
 7.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을 것
 8.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
 9. 신실하게 기도할 것
 10. 희망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믿을 것

4. 기도

우리는 모순을 창조하시고 기도합니다. 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여,
 천후 80년 을 맞는 이 해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신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중대한 기점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왔으나, 그 걸음은 매우
 부족하였는입니다. 전하는 일, 받아들이는 일, 협력하는 일, 평화를 이루는 일, 관심을
 주지 않는 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 용기를 가지는 일, 기도하는 일, 희망을 품고
 아직도를 믿는 일, 일을 소홀히 하였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다툼과 파괴,
 혼란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평화가 하루빨리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를 깨닫게
 하시며,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다가올 10년 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우리의 현실을
 살피주시고,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하시어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로 새롭게 빚어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평화를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고
 용기있게 신실하게 살아갈 마음을 주시게 하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아멘.

2025년 6월 4일 (수)
 일본복음연맹 제 40 회 총회
 일본복음연맹 이사장 미즈구치 이사오